

국내 건설사업관리(CM) 인증자격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s of Construction Management Certification Qualification in Korea

유 회 찬* 김 주 흥** 김 재 준***
Yu, Hoe-Chan Kim, Ju-Hyung Kim, Jae-Jun

Abstract

The technical expert standing system of our construction industry is operated by the Ministry of Labor subjectiv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law, as the professional engineer, architect and architect-engineer and so on. The construction management(CM) which is introduced on middle 1990 activates a building industry the condition of the essential indispensability for is becoming, is not officially recognized with is judged as the nostril people for qualification of the civil CM educational institutions ha the certification which is a each educational program and a separate way and it is the actual condition which is become accomplished.

In this research, it observes the capital increase reserve problem point which is a domestic CM and the certification integration which is a report and system anger it leads and with national certified qualification it develops to present the improvement program for, it does to sleep.

키워드 : CM, 자격제도(국가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국가비공인 민간자격

Keywords : Construction Management, Technical Expert Standing System, National Qualification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에서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이하 CM)의 도입 및 적용은 1990년 이래로 많은 연구 및 토론을 거쳐 이제는 국가적, 사회적 요구가 되었으며, 모든 건설프로젝트에 CM의 적용이 현실화, 구체화되고 있다.

건설사업관리 제도가 국내 건설산업에 도입됨에 따라 전문적인 CM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현안으로 대두되어온 것 중 하나가 건설사업관리자의 교육과 자격체계 문제이다.

시급한 현안문제는 CM의 각론적 추진 및 전문적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가화(Professionalism)로서 특히 전문인력 양성은 현업에서 지속적인 숙제로 남아 있다.

CM전문가 역량향상을 위한 CM교육/인증자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CM의 역할 증대는 물론 발주공사 적용시 공공성 확대를 위해 민간 CM 자격을 통폐합, 전문성을 인정받고 CM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간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비공인민간자격”으로 5,468명 정도가 인증자격을 취득한 상태(2008. 6 기준)로써 CM발주 프로젝트에서 인증자격이 충족요건에서 배제되어 있다.

장기교육을 통하여 배출되고 있는 5개의 인증자격은 뒤따라야 하는 신뢰성과 효율성을 보유하지 못한 채 배출자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사업관리(CM) 자격인증 현황을 고찰하고, 실증적 연구를 위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CM교육 교육생 및 수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 분석을 통해 CM 인증자격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인증현황을 고찰하고, 건설사업관리(CM) 인증자격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 및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여 현재 CM인증자격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CM 인증자격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한다.

둘째, 건설사업관리(CM) 인증자격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

* 한양대학교 건축환경공학과, 석사과정, 정희원,

** 한양대학교 건축환경공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정희원

*** 한양대학교 건축환경공학과 정교수, 공학박사, 정희원

표 1. 국내외 CM 인증자격 현황

구분	인증자격	주관기관	개시일	인증자격자	교육시간	차별성
한국 민간 자격	CCM	한국CM기술협회/한양대학교 (사)민간자격협회	1996.3	430명	180시간	· CMAA와의 교육협약으로 CMAA Document / Capstone Course 등 CM BOK을 중심으로 교육
	CMP	(사)한국기술사회 CM교육원	1998.5	2,513명	180시간	· 서울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인 교육으로 승화
	PCM	(사)건설기술교육원	1999.4	1,100명	154시간	· 5개 교육과정으로 구분, 세부과정별 CM교육의 틀 정립
	CCMP	(사)한국건설감리협회	2000.11	100명	176시간	· 주고 감리원대상 교육, 2002년 이후 중단
	CMM	(사)건설공제조합	2001.3	30명	152시간	· 2001년 이후 중단
미국 인증 자격	건설사업 관리사	(사)한국CM협회	2004.11	395명	없음	· 별도의 교육없이 1,2,차로 실시 · 합격자에 한하여 8시간 보수교육 실시
	CCM	CMAA	1997	· 전체: 1,036명 · 한국: 5명	없음	· 2008년 8월부터 한국에서도 On-Line Test 실시
	PMP	PMI	1984	· 전체: 265,000명 · 한국: 10,500명	35시간	· 2001년부터 CBT(Computer Based Test) 실시

및 수료자를 대상으로 현재 CM 인증자격 제도에 관한 설문지를 실시한다.

셋째, 설문지 결과 토대로 현 CM 자격인증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넷째, 문제점 분석을 통한 CM 자격인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 국내 국가기술자격체계 및 현황

2.1 국내 국가기술자격체계

현재 건설산업을 포함한 국내산업의 각종 자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자격기본법」¹⁾으로 자격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자격은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이고, 민간자격은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정의된다. 건설분야 자격은 노동부의 「국가기술자격법」에서 노동부가 총괄적인 자격제도의 운영 및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국토해양부는 건축사법을, 과학기술부는 기술사법을 주관하는 등 각각 개별 법에 따라 자격취득자 활용 및 사후관리 등을 관장하며, 자격 검정의 경우 기술사 및 기술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위탁, 시행하고 있다. 민간 자격제도의 「자

격기본법」의 국가 공인업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위임받은 민간자격 국가공인사업을 일련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자격공인업무는 절차상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의 공인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로 실질적으로는 담당 관청에 의하여 공인되며 자격의 등급도 국가자격에 준하고 있어 실질적인 국가자격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CM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CM인증자격은 「자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자격과는 구분되는 “비공인 민간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2.2 국내 CM 비공인 민간자격 현황

현재 국내 CM 비공인 민간자격은 총 6개의 민간자격이 실시되고 있다. 먼저, 건설사업관리 및 개발전문가과정(CCM)은 한국CM기술협회와 한양대학교, (사)민간자격협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현재 430명의 인증자격자를 배출했다. CMP는 (사)한국기술사회 CM교육원이 주관기관으로 현재 2,513명의 인증자격자를 배출, 국내 CM자격자의 61.4%를 차지하고 있다. PCM은 (사)건설기술교육원이 주관으로 인증자격자는 총 1,100명으로 CMP에 이어 21%를 구성하고 있다. CCMP는 (사)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주로 감리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11월 개시돼 100명의 자격자가 배출되었으나 2002년 이후 중단되었다. CMM은 (사)건설공제조합이 지난 2001년 3월 개시, 총 30명의 자격자를 배출했으나 지난 2001년 이후 중단되었다. 건설사업관리사는 (사)한국CM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지난 2004년 11월 개시, 현재 395명의 자격자를 배출하였다.

1) 자격기본법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으로 법률 제5733호(일부개정, 1999.01.29) 및 대통령령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 2001.01.21)로 발효된 법령이다.

표 1은 2008년 6월까지 국내외 CM의 비공인 민간자격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듯 국내 자격인증은 현재까지 총 6가지가 운영 중에 있으며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각자 취득한 자격인증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등 혼재된 상황이다.

미국의 CM 비공인 자격인증에 따르면 CCM과 PMP가 있는데 CMAA가 주관기관인 CCM은 지난 1997년 개시해 전체 1,036명의 인증자를 배출했으며, 한국에선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되어 총 5명의 미국 인증을 획득하였다. 또한, PMI가 주관기관인 PMP는 지난 1984년 개시되어 전체 265,000명의 인증자가 배출됐으며 국내에선 지난 199년부터 실시돼 10,500명이 PMP 자격증을 갖고 있다.

3. 설문조사 및 분석

3.1 설문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현 인증자격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고자 CM인증자격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 및 수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2. 설문조사 대상 및 기간

구 분	내 용
조사기간	2009. 4. 2 ~ 2009. 4. 13 (12일간)
조사대상	건설사업관리 및 개발전문가(CCM) 교육생 및 수료자
조사방법	실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실시 및 수료자의 경우 우편 및 E-mail을 통하여 112부 배포(회수 83부)

설문조사는 건설사업관리 및 개발전문가(CCM) 교육생 및 수료자 83명으로부터 회수한 설문지 중 부정확하게 응답된 설문지를 제외한 81명의 설문내용을 활용하였다.

그림 1은 설문조사 분석대상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대상자들의 기초 정보를 타나낸 것이다. 조사대상의 약 73%인 62명은 건설사업관리 교육 이외에 다른 CM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CMP와 PCM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 CM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있어 다양한 CM교육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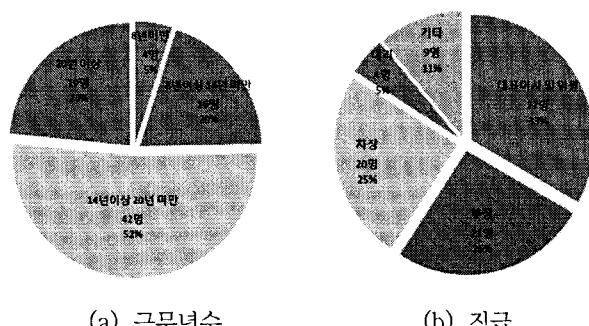


그림 1. 조사 대상자 일반 사항

3.2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먼저, 현재 실시하고 있는 CM교육에 대한 교육생들의 만족도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61% 정도가 “보통”이하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CM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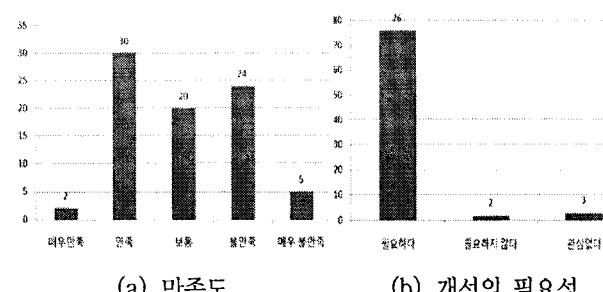


그림 2. 조사 대상자 일반 사항

다음으로 그림 3과 같이 설문문항을 바탕으로 현 CM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 각 항목의 평가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숫자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존 CM교육 인증자격제도의 문제점

CM교육 인증자격 제도의 문제점	중요도					비교
	1	2	3	4	5	
기존 자격인증의 혼재	<input type="checkbox"/>					
학력 및 경력 필요 없음	<input type="checkbox"/>					
사관자격증사제도 없음	<input type="checkbox"/>					
CM교육 없이 자격시험	<input type="checkbox"/>					
합격기준이 너무 낮음	<input type="checkbox"/>					
제 인증 프로그램 없음	<input type="checkbox"/>					
제 인증 대체(세미나 등)	<input type="checkbox"/>					

그림 3. 설문조사 항목

기존 문헌 및 자료에서 도출된 문제점 항목을 가지고 설문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3. 설문조사 결과

CM인증자격의 문제점	1	2	3	4	5	총계	순위
기존 자격인증의 혼재	0	1	4	68	8	326	1
학력 및 경력 필요 없음	0	2	42	30	7	285	3
사전자격심사제도 없음	1	19	23	21	17	277	4
CM교육 없이 자격시험	2	48	21	7	3	204	7
합격기준이 너무 낮음	2	10	21	39	9	286	2
재 인증 프로그램 없음	2	21	46	6	6	236	5
재 인증 대체(세미나 등)	4	22	51	2	2	219	6

설문조사 결과 “기존 자격인증의 혼재”, “합격기준이 너무 낮음”, “학력 및 경력 필요 없음”, “사전자격심사제도 없음”, “재 인증 프로그램 없음”, “재 인증 대체”, “CM 교육 없이 자격시험” 순으로 나타났다. 현 CM 자격제도에 대해 기존 자격인증의 혼재와 합격기준이 너무 낮은 부분에 대해 가장 높게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CM 분야의 제격제도에 있어 국내 6개의 CM 자격인증 통합 및 표준적 교육 프로그램 수립이 필요하며, 자격인증자의 실질적 검증 방법으로 서류심사 및 조사를 통한 소정의 응시기준을 정하고, 시험 응시 전 CMDP 대한 적성능력과 사전면접, OPEN EXAM 등을 실시해 자격인증 수험에 적정한 수준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인증현황을 고찰하고, 건설사업관리 인증자격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 및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여 현재 CM인증자격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CM교육에 대한 교육생들의 만족도 정도를 조사한 결과 61% 정도가 “보통”이하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CM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기존 문헌 및 자료에서 도출된 문제점 항목을 가지고 설문을 실시한 결과 현 CM 자격제도에 대해 기존 자격인증의 혼재와 합격기준이 너무 낮은 부분에 대해 가장 높게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른 CM 분야의 제격제도에 있어 국내 6개의 CM 자격인증 통합 및 표준적 교육 프로그램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적정학력과 경력을 요구해야 하며, 합격수준의 상향 조정과 재인증 프록램을 수립한다. 무엇보다도 자격증 제도 개선을 통한 CM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CM관련 5,000여명의 민간자격자가 배출된 현재 CM자격통합을 놓고 자격통합을 촉구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인증기관을 놓고 이견을 보여 향후 자격통합 향방에 보다 실질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순희,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쟁점과 대안, 한국노동연구원
2. 김대호, 국내의 CM교육사례, 한국건설관리학회지 제2권 제3호(통권7호), pp.19~23, 2001.09
3. 김예상, 대학CM교육의 현황과 전망, 한국건설관리학지, 제2권 제3호(통권7호), pp.14~18, 2001.09,
4. 김창교, 국내 건설사업관리(CM) 인증자격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대한설비공학회 논문집, pp.157~164, 2005.05
5. <http://www.kpea.or.kr>(한국기술사회CM교육원)(CMP)
6. <http://cmcic.hanyang.ac.kr>(한양대학교/한국CM기술협회)(CCM)
7. <http://kicte.or.ke/infor/infor.html>(한국건설기술교육원)(PCM)
8. <http://www.kcve.or.kr/korean/viewtopic.php?t=821&view=previous> (국토일보_국내 CM인증 자격과 경력관리 현황 및 향후 방향)